시골 소년에서 국제상법 학자로… "사회의 은혜 평생 갚고파"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양호 교수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한 사람의 학자가 걸어온 길이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 가족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가난과 상실, 노력과 감사, 그리고 환원의 철학이 깊이 배어 있었다.

송양호 교수를 연구실에서 만나 인터뷰를 통해 그의 값진 인생관과 사회에 대해 항상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고결한 성품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어렸을 적 홀로 남겨지신
어머니 일손 도와가며 성장
그 시절 떠올리며 자립 다짐

배움의 길, 장학금이 이어줘
석사학위 논문 '국제물품
매매계약 유엔 협약 연구'
훗날 학문적 방향 결정 토대

독일 유학 생활, 성장의 시간
국제상법 전문가로서 자문
참여 지역 산업 발전 힘 보태
"대학 발전 핵심은 '소통'
경청은 자신에게 큰 자산"

#열 살 소년의 상실, 그리고 시작된 자립

1965년 전북 완주군 비봉면. 천주교 성지로 알려진 조용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자연과 공동체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평온했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열 살 되던 해 아버지를 여의면서 삶의 무게가 어린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일곱 남매 중 여섯째였던 그는 형과 누나들이 하나둘 집을 떠난 뒤 홀로 남겨지신 어머니의 일손을 도와가며 함께 생활하며 성장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며 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비봉에서 초등학교를 마친 후 중학교는 비봉에 없어 버스를 타고 완주중학교까지 다녔고, 전라고등학교 진학 후에는 전주로 나와 누님과 자취를 시작했다.

시골 소년에게 도시 생활은 낯설었지만, 배움에 대한 열망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장학금이 이어준 배움의 길

고교졸업 후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도 있었지만, 가정형편 상 전북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한 그는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을 이어갔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했다. "공부만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그의 굳센 믿음이었다.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는 상법을 전공하며 조교로 활동하여 학비를 벌어가며 생활했다.

석사학위 논문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 연구"였다. 국제 수출입 계약의 핵심이 되는 이 협약은 훗날 그의 학문적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토대가 됐다.

그는 "돈저히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에서 학과 조교일을 하고 장학금으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기에 늘 마음속에 빚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빚'은 훗날 그의 삶을 이끄는 가치가 된다.

#독일에서의 6년, 세계를 배우다

더 넓은 학문의 세계를 향해 그는 독일 유학을 선택했다. 출국 전 2년 반 동안 독일어 공부에 전력을 다해 몰두했고, 교육부가 주관하는 국비 장학생 선발시험에 합격(국제상법 분야)해 장학금의 혜택을 받아 독일 유학길에 올랐다.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에서 국제상법을 전공한 그는 독일·한국·영미법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과 비교 연구하며 박사 학위를 준비했다.

낯선 환경과 치열한 연구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언어와 학문 준비를 충분히 했기에 유학 생활은 도전이면서도 성장의 시간이었다.

일주일에 세 번씩 새벽 5시부터 3시간씩 건물 청소를 하면서도 독일에서 학문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즐거움에 전혀 힘든 줄을 몰랐다고 한다. 독일 당국에서는 국비유학이라는 점을 인정해 합리적이게도 일주일에 36시간씩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었다.

이렇게 번 돈은 박사학위논문이 완성될 때쯤에 장학금 지급 기한이 지나고 한국에서 IMF 외환위기가 왔을 때 빛을 발했다고 한다. 현지에서 독일 마르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현지 한국 유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한다.

한국 나이 35세에 박사 학위를 취득했을 때, 그는 성취보다 감사의 마음이 더 컸다고 말했다. "국가의 세금으로 공부했으니 언젠가는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는 다짐이 그때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시간강사 시절, 묵묵한 기다림의 시간

귀국 후 곧바로 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지 못하고 약 4년 반 동안 시간강사로 지냈다.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도 그는 학생들의 지도를 위해 강의를 준비하고 연구를 이어가며 학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시절을 그는 "조용한 인내의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강단에 서는 기쁨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교차했지만, 학생들과 만나는 순간만큼은 언제나 행복했다.

2003년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임용되면서 그의 긴 기다림은 결실을 맺었다. 이후 2005년 법과대학으로 옮겨 법학 교육에 전념했고, 25년 넘게 상법과 국제거래법을 가르치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2004년에는 학교 기업인 전북대 햄을 교육부 사업으로 진행하였고, 2005년에는 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주관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9년부터 2011까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으로 재직하면서 상법 전공자로서 전문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특히 연구비 수주,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고온 플라스마센터, 로스앨러모스연구소 등 대형 인프라사업 수주 및 구축 작업에 일조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시절에는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발전 기금을 모금하여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어 합격률을 대폭 증가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이바지했다.

#강단을 넘어 사회로 향한 학문

송 교수의 활동은 강의실에만 머물지 않았다. 국제상법 전문가로서 기업 자문과 국제 거래 컨설팅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도 힘을 보탰다.

그는 "전북에 있는 기업을 돕는 컨설팅은 결국 전북의 기업이 문제없이 성장하도록 돕는 일"이라며 "학문을 사회에 환원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다양한 경제단체에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지역의 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에도 헌신적으로 임하고 있다.

다양한 상사법 관련 학회에 가입하여 회장으로, 또 회원으로 헌신적 활동을 이어가며 학문공동체에도 이바지했고,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법학 교육의 질적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과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으로 우리나라 국제 계약당사자들의 법률문제 해결에 진력하고 있고, 법무부와 농촌진흥청 등의 각종 법규 제. 개정 작업에 참여했다.

#사회 환원을 향한 평생의 약속

그의 삶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는 '환원'이다. 장학금과 국비 지원으로 학업을 이어온 경험은 사회적 책임 의식으로 이어졌다.

정년퇴직 후 그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기업 자문을 통해 얻은 수익을 사회공헌 활동에 투입해 지속 가능한 봉사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6년의 독일 유학 생활 동안 외국에서 겪은 수많은 어려움을 알기에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또는 일을 하러 와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고 싶다"는 그의 말에는 학자의 따뜻한 시선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려는 그만의 가슴 뭉클한 사연이 담겨 있었다.

국비유학을 다녀온 3,000여 명의 단체인 국비유학한림원에 가보면 모든 유학생이 똑같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채무 의식이 있고 방법은 다르지만, 자기들이 배운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동일한 책무를 지고 있다고 한다.

#대학과 공동체를 향한 리더십 철학

한 차례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에 도전한 경험이 있는 그는 대학 발전의 핵심을 '소통'에서 찾는다. 교수·학생·직원 등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공통의 방향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대학 리더십의 본질이라는 설명이다.

"1,100여 명의 교수는 각자 다른 세계를 연구한다.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 최대공약수를 찾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는 그의 말은 대학 행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준다.

그의 구성원들에 대한 섬김의 자세는 남다르다. 어려서부터 서당을 하셨던 할아버지로부터 한자 교육을 받고 자란 탓인지 다름에 대한 인정과 섬김에 대한 태도가 확고하다.

송 교수는 어려운 대학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서 대안을 제시하며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전북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만이 지역 소멸과 대학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사람을 향한 학자의 길

인터뷰를 마치며 그는 자신의 강점으로 '경청'을 꼽았다.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고, 그것이 교육과 조직 생활에서도 큰 자산이 됐다는 것이다.

가난과 상실을 딛고 국제적 학자로 성장한 송양호 교수의 삶은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라 성실과 감사, 나눔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삶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는 오늘도 강단에서 제자들을 만나며 언젠가 더 크게 사회에 돌려줄 날을 기약하며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이어지는 그의 발걸음은 한 교육자의 사명이 과연 무엇인지 말해준다.

배움을 통해 삶을 바꾸고, 그 배움을 다시 세상에 건네주는 삶. 송양호 교수의 이러한 삶이 감동을 주는 이유는 바로 그 진심 어린 '순환의 철학'에 있다.

/이만호 기자

▶▶ 송양호 교수는?

- 1965년 전북 완주 비봉출생
- 전라고등학교 졸업
-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법학석사 졸업
-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법학박사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상사법 국제거래법 교수
- 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전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 현 한국상사법학회 수석부회장
- 현 전주상공회의소 경영자문위원
- 현 전북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감사